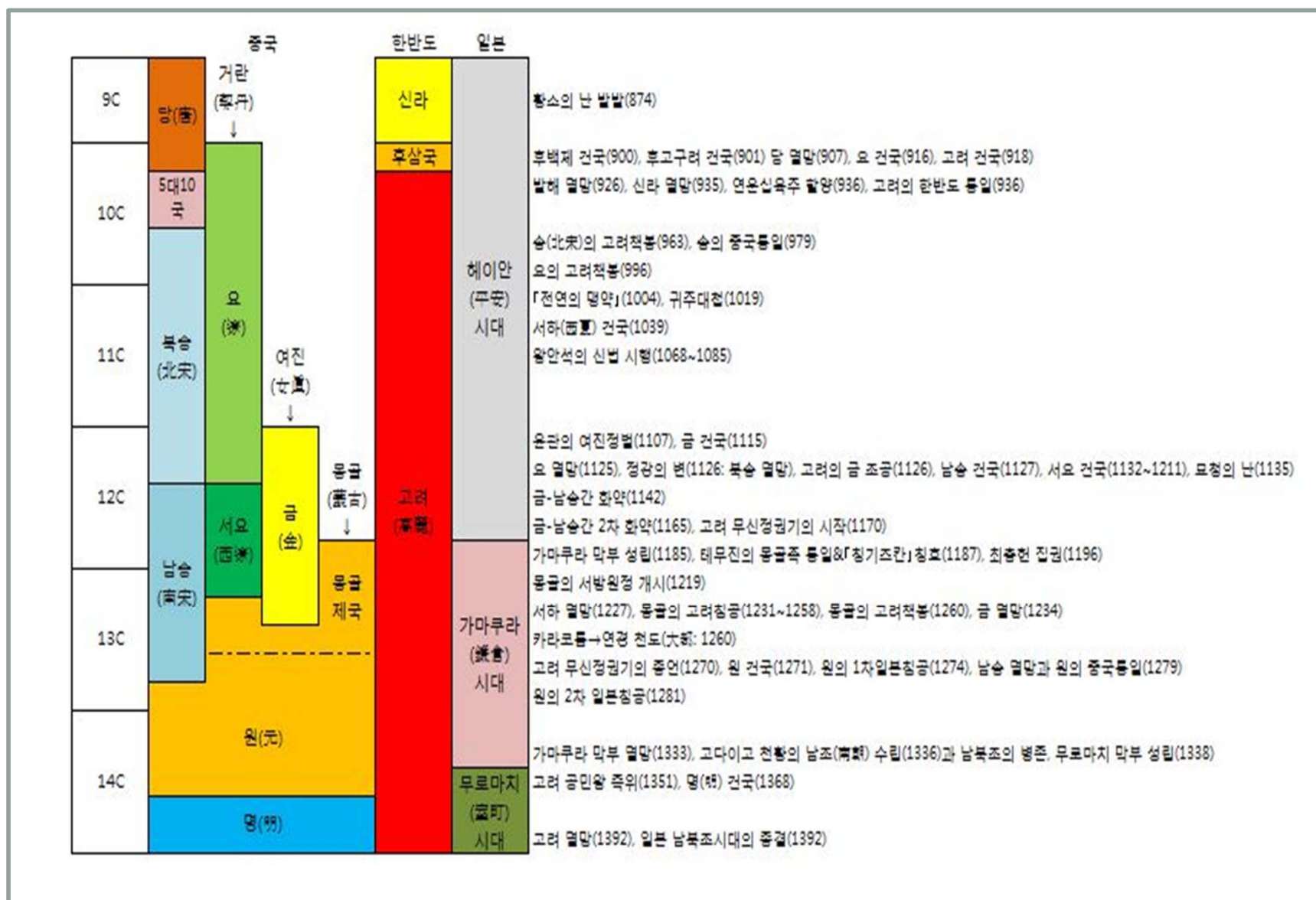


## 07. 동아시아 중세의 시작과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흐름 ①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0. 참고연표



## 1. 개괄: 동아시아의 「중세」적 특징에 관하여

### • 동아시아 고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 당 말에서 5대10국기를 거쳐 송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사회에 서는 그 지배체제를 포함한 사회전반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사 연구자들은 이 시기 이후를 고대와 구분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중세」라 부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 새롭다는 양상들 중 무엇을 중시하여 새 시대의 기준으로 삼든 간에, 이 새로운 양상들은 모두 동아시아 고대의 특징이었던 율령제 국가체제로부터의 이탈이란 점에서 공통된다.

### • 전술한 「새로운 양상」들

: 율령제 국가가 붕괴하면서 그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병농일치적 개병제(=징병제)도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신변과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각지에 할거하던 지방 유력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私兵) 양성에 몰두하는데, 이는 이 시기 병농분리적 모병제로 발전한다.

: 한편 고대 율령제 국가체제와 그 공식이념이던 유학에서 중시되던 것은 농업경제였다. 그리고 토지부여와 세금징수 상의 편의를 위해 농민의 거주지 이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화폐경제의 성장과 상업의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었지만(계속)

## 1. 개괄: 동아시아의 「중세」적 특징에 관하여

### • 전술한 「새로운 양상」들 (계속)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개발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제의 성장은 잉여생산물의 증대를 불러와,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전, 그리고 상인계층의 대두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경제에서 상업이 점하는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했고, 성공한 상인들은 지방에서 균전제 붕괴 이후 방치된 토지들을 손쉽게 확보하며 대토지 소유주로 부상하여, 고대의 지방관을 대체하는 지방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한다(→사대부). 이들은 절도사처럼 무력으로 지방에서 할거하던 세력의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

: 반면 고대의 주인공들이던 중앙의 문벌귀족들은 환관세력과의 권력다툼, 그리고 지방의 무장권력들의 무력행사로 인해 몰락하였다. 이처럼 왕조의 지배층이 교대되는 점도 당말 이후의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양상」들은 특히 당말~5대10국의 혼란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며, 후술하겠지만 고대 율령제 국가가 붕괴한 이후의 한반도나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1. 개괄: 동아시아의 「중세」적 특징에 관하여

### • 전술한 「새로운 양상」들 (계속)

: 한편 5대10국의 혼란/분열기를 수습하고 건국한 송(북송) 왕조는 지방세력의 할거로 인한 대혼란의 근본적 원인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 무관(군사지도자)들의 존재에 있다고 보고, 이들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이런 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건국 이래 강력한 문치주의, 즉 문관 우대정책을 폈다. 이에 협력한 것이 앞서 언급한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이었고, 송 왕조는 이들의 협력 하에 이전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적 문신관료제를 정비해 나갔으며, 이를 위해 관료의 충원수단인 과거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전시殿試의 신설이나 각종 부조리 개선).

: 또한 당 왕조 말기 이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에 비해 보다 강력해지고 체계가 잡힌 이민족(왕조)들의 존재이다. 고대 이래 중국에 대한 일시적 약탈을 반복하던 이민족들은, 이 시기 북중국의 국지적 지배, 그리고는 전 중국의 정복통일로 그 존재감을 높여 갔으며, 예전처럼 중국문화에 흡수/동화되지 않기 위해 자민족의 고유한 관습의 유지에 부심했다. (계속)

## 1. 개괄: 동아시아의 「중세」적 특징에 관하여

### • 전술한 「새로운 양상」들 (계속)

→(계속) 그 결과, 이민족 왕조의 지배 하에서 중국에는 이민족과 한족의 관습이 공존하게 되며, 따라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보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신분계급적으로도 「역사의 무대」가 크게 넓어진 점을 들 수 있겠다. 북방 이민족들의 대두와 그 정복왕조에 의한 중국문화와의 공존, 그리고 본격적인 강남개발은 이른바 「중국」의 범위가 남북으로 이 시기 크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상업발달에 따른 화폐경제와 상업도시의 발전은 그 중요한 행위주체인 일반서민들도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됨을 의미했다(→서민문화). 고대에 관한 역사적 기술이 대개 정치나 군사관련 내용에 치우친 결과, 지배계급 중에서도 상층 일부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점과는 커다란 차이라 하겠다. (이런 경향은 불교나 도교같은 종교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 5대10국(五代十國)의 분열시대

: 당 멸망~송 건국 사이의 약 60년. 화북의 5왕조와 남중국의 10개 지방정권이 명멸. 화북의 5대는 당대의 「번진」(藩鎮)의 통치구조를 확대한 일종의 「군벌정권」으로, 그 지배자는 당말의 절도사를 비롯한 지방의 신흥 무장세력

: 당 왕조가 율령지배를 통한 중앙집권적 군주지배로 동아시아 고대의 모델이 되었다면, 당말~5대10국 시대는 중앙집권 국가 붕괴 이후의, 무력에 의한 지방세력들의 할거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후삼국시대, 일본의 막부정권과 시대적 유사성을 지님

: 생존을 위한 각종 실리적 정책의 시행과 구습의 폐지

→특히 국가정책이 「경제」적 요소를 중시한 점은 중요

: 후진(後晉)의 「연운16주」할양(to 거란)이 갖는 의미

→이민족의 기나긴 화북지배의 시작과 정복왕조의 전조

: 행정사무를 위한 문관의 말단직 등용→송대 「사대부」로 발전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송의 건국과 문치주의의 채용

- : 송 건국(960)과 중국 통일(979)

- :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재수립이란 과제

- 하지만 그 결과로 재건된 중앙집권적 국가의 모습은 고대 율령제 국가와는 상당히 다름 (=중세적)

- : 직전까지 「할거」하던 지방무장세력(ex. 절도사)에 대한 공포

- 그들이 향유하던 병권, 재정권, 민정권의 회수

- 군대와 지방의 요직에 모두 문관을 임명(할거 방지)

- : 중앙의 행정조직 면에서도 황제의 발언권이 증대함

- : 군사제도의 변화

- 황제 직속 중앙군의 강화(지방병권X), 모병제 도입

- 모병제 도입과 이민족과의 긴장고조로 큰 재정적 부담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 강화된 문신관료제와 과거제

: 5대10국이란 혼란/분열기의 반성으로 더욱 강화된 황제권  
→보다 많은 관료의 필요. 이는 과거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짐

: 당대에 비해 음서제(=중앙귀족들의 권력세습 수단) 약화,  
「전시」(殿試)의 등장, 정기적인 시행, 공정성 확보 등

: but 이런 문신위주의 관료제는 관료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었고, 과거제 역시 예전에 비해 합리화되었다고는 하나 오래지 않아 새로운 지배층(지방, 특히 강남 지역의 호족, 유력 농민층 같은 대토지 소유자→사대부)들의 권력창출 수단으로 전락함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 송의 대외관계

: 수/당의 적극적 대외정책 ⇔ 송의 소극적 문치주의

→ 이민족 국가에 대한 군사적 열세

: 「요」(遼)···거란(契丹)족 왕조(10C초)

→ 발해 멸망(926), 연운16주 획득(936), 고려 굴복(994)

→ 「전연(遼淵)의 맹약」(1004)···송과의 화평. 무역의 시작

→ 원(元) · 청(淸)으로 이어지는 이민족 정복왕조의 원형

: 「금」(金)···여진(女眞)족 왕조(12C초)

→ 고유의 부족운영체제를 행정/경제/사회/군사조직으로 활용. 이 점도 후대의 정복왕조들이 반복함

→ 요 멸망(1125), 송(北宋) 멸망과 고려의 조공(1126)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시행과 그 배경

: 송대는 이전 왕조들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보인 시대로, 특히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업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 이 시기 경제사 연구의 결론

: 문제는 이런 경제적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비 지출과 비대한 관료제의 유지비용으로 만성적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개혁의 필요성 대두

: 이 시기 당 왕조까지의 중앙 문벌귀족들을 대체(이들은 당말 이래의 혼란으로 몰락)한 사대부 등 지방출신 신흥 지배층들은 출신지의 대토지 소유자인 경우가 많음

→이들이 득세하며 지방의 소득 불균형 심화. 농민부담 ↑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시행과 그 배경 (계속)
  - : 송 신종(神宗)의 왕안석 등용(1068)과 개혁단행
  - 대체로 고대 율령제 국가로의 회귀를 지향(+각종 합리화정책)
  - 국가재정은 회복되나 농민부담은 경감X (→농민반란)
  - : 사대부 등 기존 권력층의 반대
  - 이후 지배층이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양분, 극한대립
  - : 회복된 국가재정으로 인한 황제의 사치, 증가된 부담으로 인한 지방의 농민반란, 신법의 무리한 적용 및 금의 침공
  - 「정강의 변」과 송(북송)의 멸망(1126)
- 남송(南宋)의 건국과 이후의 정국 흐름
  - : 남송의 건국(1127)과 금과의 대치상황
  - 남송의 신종(臣從)과 금의 책봉(1142)으로 화평
  - 남송은 이외에도 은과 비단을 지불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남송(南宋)의 건국과 이후의 정국 흐름 (계속)

- : 중국 왕조가 이민족 왕조에게 신하의 예를 취한 이례적 상황

-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

- : 강남개발의 진전, 상업/도시의 발달로 경제력 ↑

- 군사적 열세에도 남송이 150년을 존속할 수 있던 이유

- : 북송 이래의 고질적 문제는 해결X

- ①대토지 소유의 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의 불균형

- ②북방 이민족(=금)의 위협으로 인한 군비의 재정압박

- : 지배층의 전횡과 외교적 판단미스

- 원(元)에 의한 남송 멸망(1279)와 이민족 왕조의 중국전역 지배라는 초유의 사건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 • 송대의 경제와 문화

: 송대의 대표적 혁신기술...인쇄술, 나침반, 화약

: 목판인쇄술의 광범위한 보급과 과거제도

: 지방의 신흥 지주층(=형세호形勢戶)의 대두

→대토지 소유에 기초하여 송대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

→중앙관료化(by과거제)하거나 지방 사대부로서 향촌을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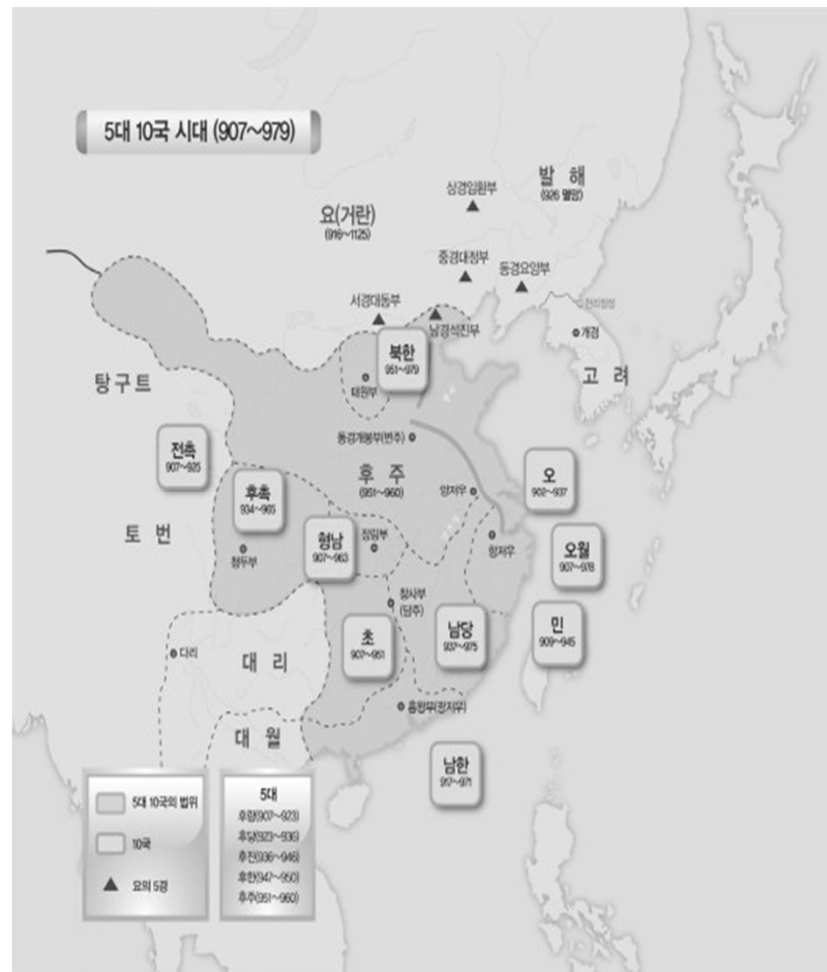
: 상업도시의 발전과 서민문화의 등장

: 성리학(性理學)의 등장과 국가이념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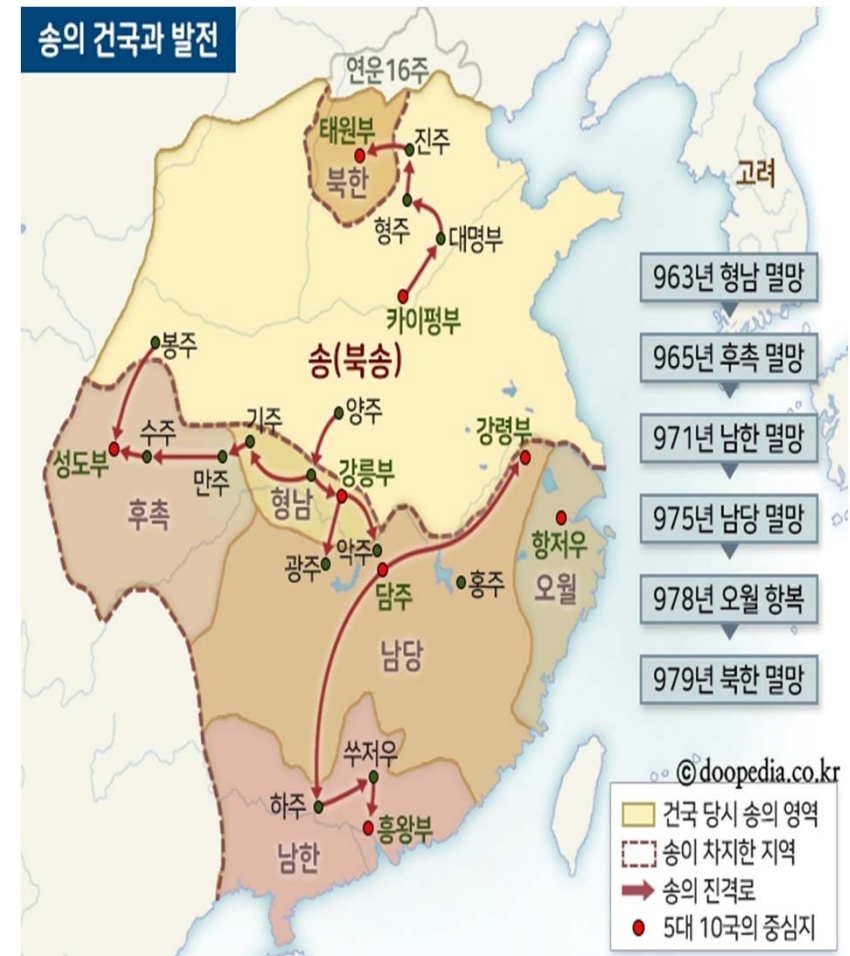
→송대 스타일의 강력한 황제권과 전술한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줌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참고도판

### 5대10국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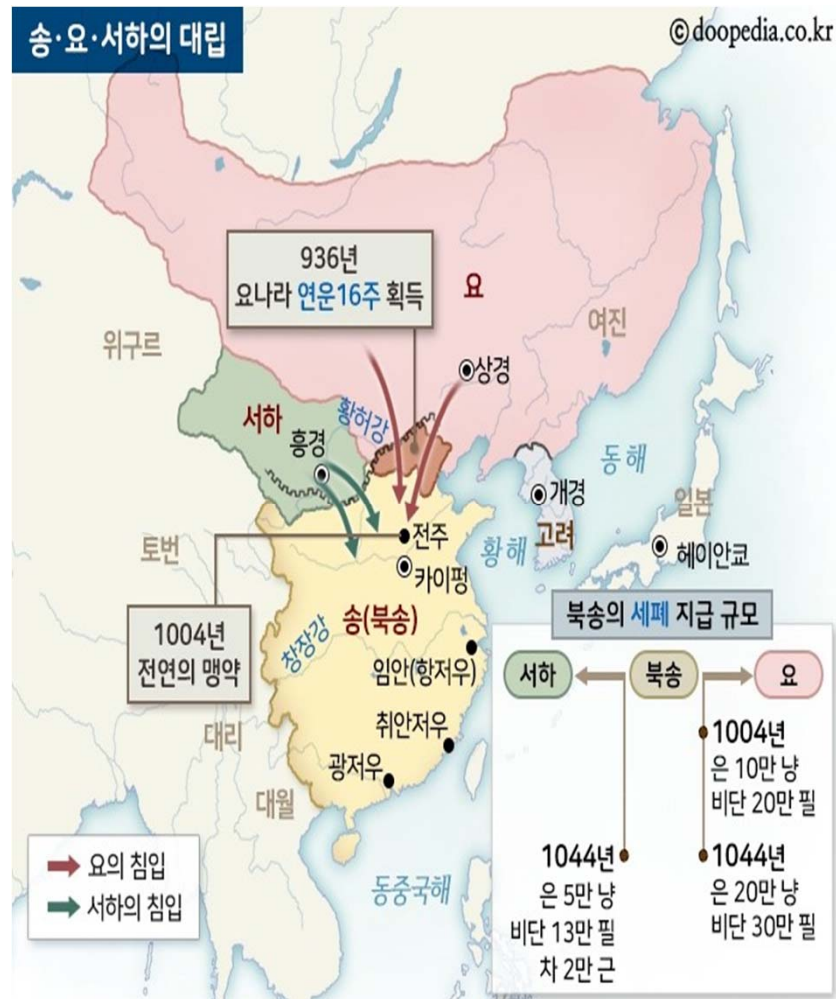


### 송의 건국과 중국통일



## 2. 중국: 5대10국의 분열기와 송(宋)의 중국통일: 참고도판

### 북송의 대외관계



### 남송의 대외관계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 개괄: 정복왕조

: 요 · 금 · 원 등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한 이민족 왕조. 한족 왕조와는 다른, 자문화에 기초한 지배체제를 중국에 도입하여 이를 자신들에게만 적용하거나(=이중지배체제), 혹은 한족을 포함한 전 중국에 적용하거나 함

: 이런 이민족 정복왕조와 그 복합적인 지배체제에 관한 연구는 21C에 들어와 중국사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그 결과 고대 율령제 이래의 한족 중심 중앙집권국가 모델이 중국사에서 점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상대화됨

→상세는 text pp.225~230을 참조

- 칭기즈칸의 등장과 몽골제국

: 테무진(鐵木眞)의 몽골 제 부족통일과 「칭기즈칸」칭호(1187)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 칭기즈칸의 등장과 몽골제국 (계속)

- : 13C에 들어와 먼저 중국주변의 이민족 왕조들을 제압한 뒤, 서방원정을 개시→중앙아시아 전역을 지배

- : 이후 그 후손들이 금을 멸망시키고(1234), 러시아~동유럽 일대까지 복속시킴

- : 이렇게 획득한 광대한 영토는 칭기즈칸의 직계후손들에게 분할됨→몽골황제의 직할령(몽골족의 옛 영토+화북)+4개의 한국(汗國)

- 원의 건국과 강남 지배

- : 몽골제국은 금을 멸망시켜 획득한 화북지방에 대해, 처음에는 한인(漢人) 협력자를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채택

- : 문제가 빈발하자 결국 남송까지를 포함한 전 중국의 직접 지배를 결정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 원의 건국과 강남 지배 (계속)

→ 13C 중후반에 걸쳐 고려를 포함한 주변국들을 무력제압한 뒤(일본침공은 태풍으로 실패), 남송을 멸망시키고(1279) 중국을 통일

: 쿠빌라이칸(원 세조)은 칸의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北京)으로 옮기고(1260) 국호를 원(元)으로 바꿈(1271)

→이런 중국통치 중시정책은 일부 몽골 지배계층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4한국의 분리/독립으로 이어짐

: 중국통일 이후 우선 화북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를 시행

→중앙기구는 대체로 전대의 것을 답습. 지방의 경우, 신설된 광역행정기구인 행중서성(行中書省: 행성) 밑에 로(路) · 부(府) · 주(州) · 현(縣)을 두고, 관료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만들어감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 원의 건국과 강남 지배 (계속)

: 이와 같은 외형상 중국적 통치체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통치는 군사제도나 정권참여자의 출신제한(남송출신자 배제), 과거제의 유명무실화 등에서 이전 왕조와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인민을 4등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본속법에 따라 통치함

: 그러나 전술한 몽골식 지배는 남송의 영역이던 강남지방에는 충분히 관철되지 못함(남송 방식의 존속)

- 원대의 사회와 경제

: 4등급의 인민구분 (도판참조)

: 몽골문화의 중시

→유교 경시와 라마교 신봉, 페르시아어/몽골어 중시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 • 원 왕조의 붕괴

: 중국 왕조에 비해 복잡한 지도자(군주) 선출방식에 기인한 지배층의 분열

: 국교인 라마교에 대한 과도한 국고지원으로 재정악화. 타개책으로 지폐를 남발하여 인플레이션 초래

: 관료들의 부패와 전 왕조 이래의 토지소유 불균형(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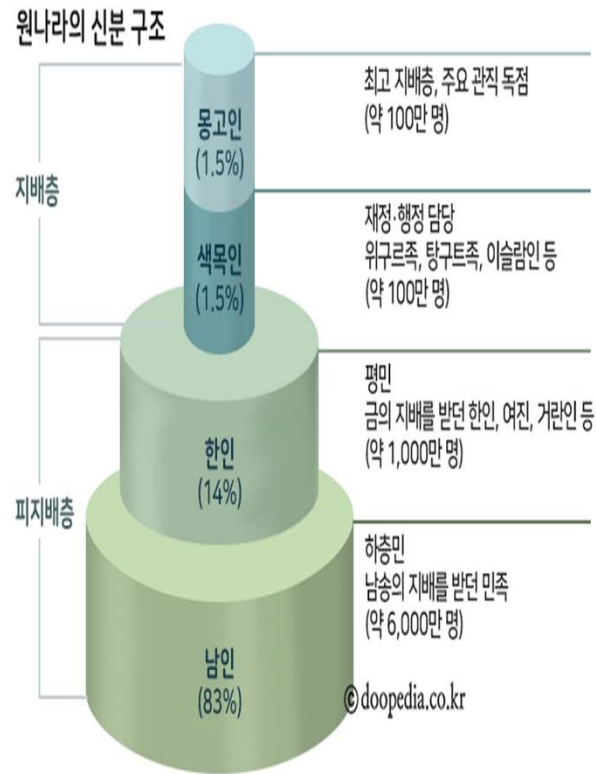
→이상의 이유로 왕조말기 대규모 농민반란이 빈발

→그 중 백련교도(白蓮教徒)의 거병(1351: 홍건적)으로 멸망

#### \*시대구분상의 원 왕조의 위치에 관해

: 이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 당말~송 이후를 기나긴 중세로 보는 설에 따르면 원을 포함하여 근대의 시작(=신해혁명)까지도 중세에 포함. 반면 정복왕조의 등장을 획기로 삼는 설에 따르면 원 이전의 요/금 왕조부터 청말까지를 또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기도 함

### 3. 정복왕조의 등장과 원(元)의 중국지배: 참고도판



## 4. 과제

Q. 당(唐)과 송(宋)의 각기 다른 지배 시스템에 대한 감상

: 배부한 텍스트나 본 보조교재의 내용을 통해, 5대10국이란 분열시대를 겪고 출현한 송 왕조가 중국 및 동아시아 고대를 대표하는 당 왕조와는 상당히 다른 지배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강의분에 대한 과제는, 바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물론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에 대해서 텍스트나 혹은 각자의 추가적 조사를 통해 그 장단을 예시하고, 각자의 감상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그 비교우위를 옹호해도 좋고, 아니면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을 써도 좋다. 분량은 이전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A4 단면 1장 정도가 기준이다.